

# 경험 빈곤의 시대, 삶의 주도권 지키는 12가지 힘

이토록 인간적인 능력  
그래이엄 리 지음, 인진이 옮김



“예전에는 어떻게 목적이 어떻게 되었는지?”

당연한 듯, 휴대폰에 의지해 길을 찾고 여행을 하다 가끔 떠올리는 생각이다. AI 등 첨단 기술이 우리 삶에 깊숙이 파고들면서 디지털에 의지하는 빈도는 높아지고 대신, 인간 고유의 ‘능력’은 점점 잊혀져 가고 있다.

국제적인 디지털 기술 교육 기업 리디언스톤의 창립자이자 CEO 그래이엄 리가 6년간의 연구 결과를 모아 펴낸 ‘이토록 인간적인 능력’ (원제 Human Being)은 역사와 과학을 가로지르며 ‘인간다운’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고 실천 방안을 안내한다.

책은 부제 ‘경험 빈곤의 시대, 삶의 주도권을 지키는 12가지 힘’에서 알 수 있듯 인간만이 갖고 있는 선천적인 능력과 학습된 능력 12가지를 예찬하며 기술 활용이 우리의 핵심 역량뿐만 아니라 인간다운 본질까지 훼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언급된 능력은 길찾기, 움직임, 대화하기, 혼자 있기, 읽기, 쓰기, 그리기, 만들기, 기억하기, 꿈꾸기, 생각하기, 그리고 시간 인식이다.

먼저 인간의 ‘길 찾기’ 능력은 태평양 폴리네시아인의 삶을 통해 이야기를 풀어낸다. 하늘을 하나의 구형 천장으로 간주하고 별들이 그 위를 지나가는 경로를 추적해온 폴리네시아인들은 1796년 현대적인 항해 도구 없이 쌍둥이선 카누를 타고 하와이에서 타히티까지 약 4000km를 항해했다.

손을 움직이는 ‘쓰기’ 능력에는 르네상스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등장한다.

그는 평생 3만쪽에 달하는 원고를 작성했고, 그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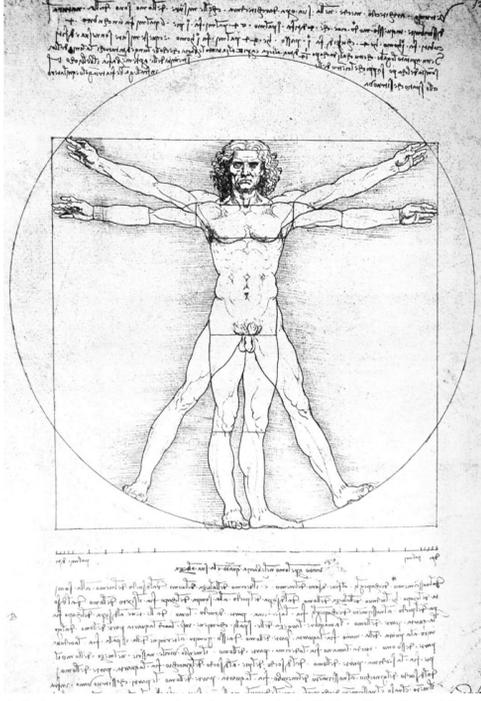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7200페이지에는 그의 정신 세계와 성과들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들이 담겨 있다. 다양한 그림, 매일 매일 할 일 목록, 수많은 주제에 관해 빼곡하게 쓴 메모 등이 등장하는데 정사각형 원 안에 위치한 ‘비트루비우스적 인간’을 담은 인체 비례도는 가장 잘 알려진 그림 중 하나다.

무인도에 표류한 한 남자의 이야기를 다룬 소설 ‘로빈슨 크루소’의 실존 모델의 사례를 통해서는 거부할 수 없는 디지털 문명 속에서 ‘혼자 있기’ 능력을 배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또 글짓기와 쓰기를 배운 적은 없지만 1만 3000행이 넘는 전통 민담을 암송하는 유고슬라비아 농부의 이야기와 ‘일리아드’, ‘오딧세이’를 암송했던 음유시인들의 활약을 통해 ‘기억하기’의 위대함을 알려준다.

그밖에 ‘대화하기 능력’은 진화학자 찰스 다윈의 이야기와 그의 저서 ‘인간과 동물의 감정 표현’을 통해, ‘생각하기’의 정수는 전시 영국 수상 처칠의 회고록 ‘2차 세계 대전’을 통해 소개한다.

책은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팁들도 담아 놓았다. 예를 들면 ‘길 찾기’ 능력 향상 방법으로는 어떤 곳에 처음 간다면 갈 때는 GPS를 사용하고 돌아올 때는 GPS를 사용하지 않는 ‘한쪽 다리 법칙’과 GPS를 한 번 사용한 경로에서는 다시 사용하지 않는 ‘외길 조광탈의 법칙’을 소개한다.

저자는 “삶에서 결정을 내리는 우리의 능력은 AI의 모든 영향 및 강요와 A가 생성하는 데이터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으로 남아야 한다”며 “무엇보다 모든 기기 또



인간의 위대한 능력 중 하나인 ‘쓰기’의 대표주자로는 평생 3만 쪽이 넘는 원고를 작성한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들 수 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대표 그림 ‘인체 비례도’.

는 AI에 명령하고 그 행동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하는 데 그러려면 우리의 능력과 예리한 정신과 지성을 최대한 발휘해야 한다”고 말한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새로운 책

▲제3의 신화학(정재서 지음) = “제3의 신화학은 가능한가”. 동아시아 신화를 현대적 시선으로 재해석한 인문서다. 신화를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로 보지 않고 오늘의 문화와 사고를 읽는 상상력의 원천으로 바라본다. 고전 신화 속 상징과 서사를 통해 인간과 세계를 이해하는 또 하나의 틀을 제시하며, 신화 읽기의 확장된 가능성을 보여준다. <창비>



▲구름 사람들(이유리 지음) = 일상의 균열 속에서 관계와 감정을 섬세하게 포착한 장편소설이 나왔다. 복잡다단한 삶을 아름답고 환상적인 상상력으로 엮어내는 이유리 작가의 이번 신작은 현실과 환상, 기억과 상상이 겹쳐지는 이야기 속에서 소설 속 인물들이 서로의 삶을 스쳐 지나가며 존재의 의미를 묻는다. 부드러운 문장과 몽환적인 분위기가 어우러져 현대인의 고독과 연결의 순간을 조용히 그려낸다. <문학동네>



▲경계에 서는 법(차병직 지음) = 법의 결정은 어떤 기준과 과정 속에서 형성되는가. 법은 현실을 어디까지 담아낼 수 있는가. 법과 사회, 개인의 삶이 만나는 경계의 문제를 탐색한 교양서가 나왔다. 사실과 믿음, 옳고 그름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태도를 제안하며 갈등의 시대에 필요한 판단의 기준을 고민한다. 법조인의 경

험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사례를 풀어내 독자가 스스로의 입장을 성찰하도록 돕는다. <김영사>

▲정답은 있다(이정호 지음) = 국가대표 축구팀이 부진할 때마다 팬들에게 한국 축구의 희망으로 거론되는 감독이 있다. 수원 삼성 블루윙즈의 감독이자 전 광주 FC 감독 이정호의 이야기다. 이 감독이 삶의 질문 앞에서 방향을 잃은 이들에게 건네는 메시지를 담은 에세이를 펴냈다. 일상 속 선택과 관계, 성장의 순간을 돌아보며 흔들리는 마음에도 나름의 답이 존재함을 전한다. <다산북스>

## 어린이·청소년 책



▲박물관 탐정 삼토끼(김은주 지음, 이수현 그림) = 박물관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어린이가 추리 동화. 그림 속 능력이 실종됐다. 호기심 많은 삼토끼가 전시물에 얽힌 비밀을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역사와 문화유산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한다. 모험과 수수께끼, 유머가 어우러져 읽는 재미와 학습 효과를 동시에 잡은 작품이다. <파란자전거>

다. 각기 다른 상처를 가진 인물들이 모여 서로를 위로하며 성장하는 과정을 그린다. 가벼운 유머와 현실적인 감정 묘사가 어우러져 이번 이후의 삶을 따뜻하게 바라보게 한다. <창비>

▲해피 실연 클럽(정은숙 지음) = 이별을 새로운 시작으로 바꿔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청소년 소설. 사랑을 믿지 않는다고 외치는 중학생 도미래가 어느 날 익명의 연애편지를 받으며 이야기가 시작된다. <푸른들녘>

▲중학생을 위한 AI 사용설명서(김동은 지음) = 생성형 AI 시대를 살아갈 청소년을 위한 실전 안내서다. AI의 개념부터 윤리, 실제 활용 방법까지 쉽게 풀어 설명하며 디지털 문해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교실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프롬프트 작성과 학습 활용 사례를 통해 AI를 도구로 활용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푸른들녘>

# 탈북민 문제를 ‘분단 문학’ 영역으로 확장하다

깊고 붉은 사랑  
유영갑 지음



우리 사회 탈북민들은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다. 지난 6월 현재, 3만4000여 명이 이를 만큼 ‘탈북민’은 외면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다. 그러나 탈북민들은 오랫동안 이방인 취급을 당해야 했고,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존재로 인식돼 왔다.

20여 년간 탈북 난민 문제를 인권문제로 접근해 온 유영갑 소설가가 최근 두 번째 탈북 문제를 형상화한 소설집 ‘깊고 붉은 사랑’을 펴냈다.

첫 번째 작품집 ‘강을 타는 사람들’ (들꽃) 이후 11년 만에 발간한 이번 작품집에서 유 작가는 탈북민들의 고

통과 좌절, 열망과 기대, 심리 등을 담아냈다. 유 작가가 이번 작품집을 발간하게 된 계기는 “수많은 탈북민들의 문제는 인간으로서 자기생존을 위한 몸부림”이라며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될 인류보편의 인권 문제로 인식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소설집의 주인공은 모두 탈북민이다”라며 “필자의 짧은 식견과 미미한 필력으로 그들의 삶을 온전히 담아냈는지 돌아보게 된다”고 덧붙였다.

책에는 ‘봄비 내리는 날’, ‘기억 속의 가시’, ‘붉은 길’, ‘초승달 뜨는 밤’, ‘그해 겨울의 두만강’ 등 모두 9편의 소설이 담겨 있다. 각각의 소설들은 탈북민들을 주요 소재로 아픈 삶과 고통의 기억 등을 그리고 있다.

유 작가는 이번 작품집을 쓰기 위해 연변조선족자치주 두만강 여러 지역으로 수차례 여행을 갔다고 한다. 소설에서 필진성과 현장감, 생동감이 느껴지는 것은 그

러한 ‘발로 뛰는’ 취재가 있었기에 가능할 터다.

여행을 통해 보고 듣고 느낀 탈북민들의 현실은 비참했다. 탈북민들의 탈북은 “목숨을 담보로 하는 삶의 마지막 선택이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과연 그들이 탈북해 정착한 한국은 그들을 진정한 이웃으로 받아들이고 따뜻한 손을 내밀고 있을까.

전상기 문학평론가는 “유영갑 작가는 한국문단에서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은 탈북민의 문제를 ‘분단문학’의 새로운 영역으로 끌어들이었다”고 평했다.

이승철 시인은 “북한이탈주민, 즉 탈북자(탈북민) 문제를 본격적으로 형상화한 유 작가의 두 번째 소설집”이라며 “다른 작가들은 주목하지 않는 주제를 끈질기게 천착해 다양한 작품으로 구현했다는 점에서 이번 작품집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들꽃>

박성진 기자 skypark@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0-중-166683호] [광고]

## 무릎 통증이 심할때는

# 첨단우리병원

### 무릎 관절

인공관절 수술  
관절경 수술  
- 전,후방 십자인대 수술  
- 연골판 수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첨단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